김재천 부의장, IEC 연료전지 기술위 '공로상'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수소 산업 발전과 국제 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연료전지 기술위원회 CHAIRMAN 공로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완주경제센터에서 열린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워크숍' 현장에서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완주군의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과 수소 산업 관련 조례 제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앞장서며 지역 수소 생태계 기반을 다진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우석대학교 RISE 사업단과 전북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완주수소연구원, 수소연료전지지역혁신센터, SZU KOREA가 주관해 마련됐다. 전북 지역 수소 기업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

현장에는 전북수소산업협의회 참여 기업 관계자와 완주 수소 산업 거버넌스 위원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 가족센터, '든든한 정착 파트너' 진행

남원시 가족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남원시 거주 3년 이상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든든한 정착 파트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생활 초기 적응을 마친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정착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래 설계와 다양한 직업체험, 사회활동 준비를 위한 지역 내 기관방문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남원시가족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센터 지역공동체팀(063-635-5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

장수군은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정현주),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 등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2,010만 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올해 부임한 정현주 지부장과 김용준 장수농협 조합장, 곽점용 장계농협 조합장이 뜻을 모아 추진됐으며 장수군지부와 장수·장계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남원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소 특성에 맞춘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2월 25일부터 10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63-620-7928) 또는 이메일(sj1662@korea.kr)로 제출하거나, 보건지원과로 직접 접수,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월 대보름을 깨우다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 공개행사' 개최
이명훈 상쇠 보유자 인정 기념잔치와 병행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가 지난 1일 고창농악전수관에서 '2026년 제28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 공개행사'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고창농악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전승 의지를 다지는 연례 축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2025년) 고창농악 상쇠 이명훈 보유자의 인정을 기념하는 '상쇠 보유자 인정 기념 잔치'가 함께 열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행사는 정월 대보름의 정취를 살린 '보름굿'과 고창농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판굿'으로 구성되었다. 오전에는 마을의 화합을 기원하는 △줄다리기 △줄굿 △오방돌기 △줄감기 등이 펼쳐졌으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산제와 당산굿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고창농악의 화려한 진법과 가락이 돋보이는 '판굿'이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이명훈 보유자 인정을 축하하는 기념 잔치가 열려, 전수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명훈 보유자는 1990년대 초부터 고창농악에 투신하여 전수관 운영과 학술적 토대 마련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이번 공개행사는 그가 이끄는 고창농악의 깊은 울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의 중심이자 고창군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새로운 보유자의 탄생과 함께 더욱 활기차게 비상할 고창농악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관통로 사거리서 '전주 시내버스 친절안전 캠페인' 전개

전주시 · 자동차노조 참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다짐

신학기 첫날인 3월 3일 아침 출근길, 전주 관통로 사거리에서 어린이와 시민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이 펼쳐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주시청 대중교통 관계자와 전북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했다.

전주시에서는 김용삼 대중교통국장을 비롯해 백미영 버스정책과장, 박상열·이종선 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교통안전 홍보에 힘을 보탰다.

전북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한국노총 측에서는 임형빈 위원장과 박홍기 사무국장, 노광진 법률국장이 함께했다. 또한 성진여객 고업수 지부장, 호남고속 이호준 지부장, 제일여객 이삼노 지부장, 전일여객 최성주 지부장 등 각 운수업체 노동조합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은 관통로 사거리 일대에서 안전운전 준수와 보행자 보호를 당부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감속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특히 신학기 첫날을 맞아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주시 대중교통 관계자와 전북 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신협-전북현대, 제3회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협약 체결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전북신협과 전북현대모터스FC가 '제3회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양춘제 전북지역협의회장 겸 신협중앙회 이사(전주파티마신협 이사장),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 이석만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장,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신협과 전북현대는 2024년부터 K리그1 개막전에 맞춰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협약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사업은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북신협은 전북현대의 정규리그 득점 한 골당 30만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연말 김장 나눔 봉사활동 재원으로 활용한다. 적립금은 전북신협 임직원과 전북현대 선수단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사용된다. 전북현대는 2024시즌 정규리그 49골로 1,470만원, 2025시즌 64골로 1,920만원을 적립해 총 3,370만원을 봉사 재원으로 마련했다.

전북신협은 매년 'Family Day'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과 조합원, 가족뿐 아니라 신협이 후원하는 어부바멘토링 센터 아동, 지역 스포츠 꿈나무 청소년, 전북 지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등 약 1,400명이 참여했다.

행사 당일에는 경기장 앞에서 'Goal For Love(축구공 과녁 맞추기)', 'Lucky Duck(오리 뽑기)', 'No.96 콤파뇨 사진관(인생네컷)', '어부바 솜사탕 나눔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전북신협 응원단은 대형 깃발 6개와 소형 깃발 1,400개를 활용해 단체 응원을 펼치며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올해도 제3회 전북신협 Family Day가 열릴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봄철 '진드기' 막는다… 정읍시보건소, 내일 시니어 맞춤 교육

정읍시보건소는 오는 5일 정읍중앙교회에서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106명을 모시고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날이 풀리며 농작업과 산행 등 야외 활동이 잦아져 감염 위험이 훌쩍 높아지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천 수칙 위주로 알차게 꾸려진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주요 증상 확인법부터 야외 활동 전후 단계별 행동 요령, 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고열과 구토를 동반하는 SFTS의 경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치명적이다. 이에 보건소는 어르신들의 세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현장에서 예방 물품도 나누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건소가 거듭 강조하는 핵심 예방 수칙은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챙겨 입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맨바닥에 앉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또한 귀가 직후에는 입었던 옷을 평상복과 분리해 세탁하고, 온몸을 샤워하며 머리카락이나 귀 주변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다녀온 뒤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구토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인근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보건소는 이번 시니어클럽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농업인과 야외 활동이 잦은 고령층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병원, 필리핀 의료봉사로 나눔의 가치 실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천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소아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감염내과, 소아치과 의료진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현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 기본 치료를 실시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도 병행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소아치과 등 아동 중심 전문 진료를 통해 성장기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를 제공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활동은 의료진과 의대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공공의료의 의미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 가치를 국경을 넘어 실천한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퇴임 이·통장 공로패 수여식 개최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 수행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이·통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이상 재직 후 영예롭게 퇴임하는 이·통장 27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그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재직 기간 동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마을 곳곳을 누비며 성실히 봉사해 주신 이·통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정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힘써 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금연을 결심한 시민과 직장인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본격 운영한다.

이 사업은 금연을 결심했지만 바쁜 일상과 업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을 위해 금연상담사가 사업장, 마을회관, 관공서, 군부대 등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5인 이상의 금연 희망자가 있는 사업장, 기관 및 단체이며, 운영 일정과 방식은 신청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 참여자에게는 △1:1 맞춤 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평가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및 행동강화 물품(가그린, 아로마파이프, 캔디 등) 제공 △금단 증상 대처법 및 금연·절주·손씻기·칫솔질 교육 △등록 후 6개월 금연 성공 시 축하 기념품 증정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장 내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춰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620-7969)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건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